

# 감성의 로직

## the logic of sens

### 테크놀로지=기술+로직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종이, 화약, 나침반 등은 중국의 기술이 만들어낸 발명품들이었다. 14세기 이전에 중국은 기술 자체로 볼 때,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했었다. 조셉 니담(Joseph Needham)의 「중국에서의 과학과 문명」(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은 그것을 실증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그 후 낙후의 길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5백년 후에는 서구의 테크놀로지가 바탕한 자본과 군사력에 굴복하는 굴욕을 감내해야 했다. 이 역사의 아이러니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내놓았다. 나의 의견은 이렇다.

먼저 엄격히 말해서 테크놀로지(technology)와 기술(technic)은 다르다는 것이다. 14세기 이전의 중국이 내놓았던 것은 하나의 기술이었지, 기술이 그 사회의 문화적 로직(logic)과 결합해 이루어지는 테크놀로지로는 진전되지 못했다. 기술이 그 사회의 문화적 근간과 결합하지 못하면, 그래서 새로운 기술의 로직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거대한 장난감에 불과하다. 중국사회는 그들의 새로운 기술과 그들의 주자학적 세계관 내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문화관을 제대

로 결합시켜 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최초의 기술을 발명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을 그 사회의 로직과 결합시켜 한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각각의 시대에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로직이 있게 마련이다. 새로 맞이한 21세기와 세번째 맞는 밀레니엄의 시대도 나름의 로직을 요구함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밀레니엄 시대를 추동시키고 이끌어갈 로직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그 로직이 다름아닌 '감성의 로직(the logic of sense)'임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더 이상 '이성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다. 우리가 살아갈 세번째 밀레니엄의 시대는 감성의 시대(the age of sense)이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차가운 이성, 경직된 합리성이 아니라 따뜻하고 유연한 감성이다. 물론 감성이 비(非)이성 혹은 반(反)이성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종래의 '이성/감성'의 이분법적 사고틀로는 더 이상의 논의가 가능치 않다. 카오스(chaos)가 단순히 혼란이 아니라 그 나름의 변화무쌍함 가운데서의 질서이며 바로 그런 점에서 코스모스(cosmos)와도 통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감성도 단순히 이성에 배치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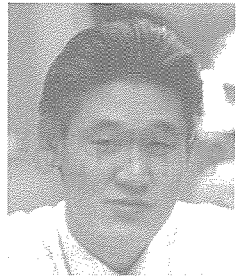
는 그 무엇이든 보다는 그 나름의 로직을 갖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 청동 조각과의 대화

영화 '위기의 남과 여'에서 호텔방을 청소하던 한 귀머거리 처녀가 헨리 무어(Henry Moore)가 만든 팔뚝 크기의 청동조각상을 흠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귀머거리 처녀는 청동조각상을 흠친 것이 아니라 그 청동조각상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와 단지 그것을 들고서 방문 밖으로 나온 것 뿐이다. 물론 흠쳤다고 말해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적어도 그녀는 자신에게 난생 처음으로 무엇인가가 말을 걸어오고 그것이 들린다고 느꼈던 그 신비감에 매료되어 그 청동조각상을 들고 나와 버린 것이다. 아무 것도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 처녀가 실제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청동조각상의 속삭임을 듣는다? 이성과 합리성으로 꼭 짜여진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수긍하고 이 상황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감(sympathy)하고 더 나아가 여기서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름아닌 감성의 로직이다.

우리가 살아갈 세번째 밀레니엄의 시대는 감성의 시대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차가운 이성. 경직된 합리성이 아니라 따뜻하고 유연한 감성이다. 종래의 '이성, 감성'의 이분법적 사고의 틀로는 논의가 어렵지만 감성도 이성에 배치되는 그 무엇이기보다는 그 나름의 로직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鄭鎭弘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 바다 위의 피아노 상상

지난 해 가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앙드레 가농(Andre Gagnon)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있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그는 1942년 생이다—가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선율은 첫 사랑의 그것처럼 감미로웠다. '바다 위의 피아노' (Un piano sur la mer)라는 곡을 연주하기에 앞서 그는 청중들에게 "바다 위의 피아노를 꿈꿔보라"고 주문했다. 바다 위의 피아노를 꿈꿔보라니? 이성과 합리성으로 무장한 사람은 먼저 바다 위에 피아노를 띄워놓을 궁리부터 할지 모른다. 뗏목 위의 피아노, 요트 위의 피아노 혹은 함선 위의 피아노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앙드레 가농이 주문한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감성의 로직은 직관적으로 주저함없이 바다 위의 피아노를 상상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상상하는 것이 꿈틀거리며 운동하게끔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감성의 로직이란 제한받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은 상상력의 운동과 다름 아니다. 상상력이 뛰놀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정서, 바로 거기에서 감성의 로직은 싹트고 열매맺는다. 여기 아홉살 난 아이가 '별들의 전쟁'이라는 시각화 테크닉을 이용하여 악성 종양을 스스

로 치료한 에피소드가 있다.

### 스스로의 시각화 테크닉

"아홉살 난 개릿 포터는 시한부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다. 약 여섯달 정도 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이었다. 그 아이는 아주 심한 악성 종양을 앓고 있었다. 방사능 치료법도 효과가 없었다. 그 종양의 위치 때문에 수술도 불가능했다. 그 아이는 한번 쓰러지면 다시 회복될 가망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포터는 자기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면역시스템이 아주 강한 것이라고 시각화하였다. 그 아이는 머리 속에서 '별들의 전쟁'을 그려 보았다. 자신의 뇌는 태양계이고, 그 종양은 태양계를 침입한 사악한 악당이라고 상상했던 것이다. 또 그 아이는 자기 자신을 종양과 맞서 싸워 이기는 우주 전투중대 대장으로 시각화 했다. 개릿은 매일 밤 자기 전에 20분씩 이 테크닉을 이용하였다. 처음 얼마동안은 상태가 점점 나빠졌지만 곧 좋아지기 시작하였다. 다섯달 후 뇌검사를 실시했다. 놀랍게도, 종양은 사라져 버리고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 속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 곧 진정으로 욕망하는 것을 그려본다는 것이 게으른 백일몽(白日

夢)이 아니라 감성의 로직에 부합하는 창조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자기회복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원하는 것을 마음 속에 그려보는 작업은 물질을 결합하고 물을 증기로 바꾸고 씨앗을 움푹하고 자라게 하는 바로 그 에너지들을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조적이고 자기회복적인 과정이며 궁극적으로는 감성의 로직이 꿈틀거리게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다.

### 감성의 로직과 함께 춤을...

감성의 로직은 마음의 텃밭에서 자라고 욕망을 통해 발현된다. 따라서 감성의 로직은 꿈을 주목한다. 꿈을 꾸다는 것은 자기 욕망의 타래를 그쳐 풀어놓는 것이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말이다. 꿈은 생동력을 지닌 욕망이 드라이브하는 것이다. 생동력을 지닌 욕망이 드라이브할 때 우리 삶은 기쁘다. 건강하다. 한마디로 신이 난다. 바로 그 기쁨, 그 건강함, 그 신명남에서 감성의 로직도 춤을 춘다. 바로 그 감성의 로직이 나를 꿈틀거리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자! 이제는 감성의 로직과 함께 춤을 추어야 할 때다. 새로 맞은 이 밀레니엄의 시대에... ⑤7